

해외 닭고기 시장 동향 및 전망



박진호 대표이사
(주)메리트무역
meritrading@hanafos.com

덤핑 물량도 거의 소진되고 오히려 곳곳에서 품귀현상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 수입육시장은 그야말로 퐁퐁 열어 붙었고, 대다수 업체들의 자금 회전율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더욱이 2월 설명절 자금으로 인해 덤핑물량은 꾸준히 진행돼 3월까지 계속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덤핑이 진행되면서 상품에 따라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산 장각류는 4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품귀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Thigh(넓적다리)는 국내 재고 물량이 완전히 소진되었고, 곧이어 왕장각(Jumbo Whole Legs)이 정리될 것 같다. 미국산이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원가 밑으로 판매되었던 브라질 정육(Bone Less Leg Meat)의 경우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4월과 5월 소비가 회복된다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내 생계시세와는 큰 관계없이 일정량의 수입육 소비는 당연한데, 이와 같은 수요량 충족을 위해 수입육 가격의 상승은 당연시된다. 원료육의 특성상 10%만 부족하면 급등하기 때문에 4월과 5월 품귀현상은 당연시 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오퍼가격은 국내와는 큰 가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3월과 4월 미국산 수입물량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국제 사료값 인상, 중국의 대량수입, 미국내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2/4분기 미국산 가금육은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업체는 호시탐탐 오퍼가 인상 기회를 살피고 있다. 미국산 가격에 비례해서 브라질 정육(Bone Less Leg Meat)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4월과 5월 중에 브라질 정육 오퍼가 또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와 브라질 날개로 일부업체의 덤핑물량이 속출했으나, 덴마크 ROSE사의 전략적 선택과 브라질 계약물량의 감소로 인해서 바닥을 지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수입업체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다. 지난 3개월간의

불황을 통해 현금 동원력과 자금력이 급격히 악화돼 가격상승에 대한 여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즉, “돈 있는 업체가 안 보인다”라는 것이다.

4월부터는 빈곤 속의 풍요가 될 듯하다. 국내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거래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

몇몇 패커들과 상담을 나누며 오퍼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쉽지 않다. 가격협상 자체가 어렵고, 서로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2/4분기 미국의 저가 시장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 미국 패커들의 입장이고, 미국내 도매가격을 살펴봐도 수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소비회복과 가격상승을 여유있게 지켜보는 듯하다.

미국 무역회사의 담당자들은 요즘 들어 꽤 한가해져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왕장각(Jumbo Whole Legs), 넓적다리(Bone In Thigh), 북채(Drum Sticks) 등의 오퍼가격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이 꿈틀하는 순간 아주 익숙한 솜씨로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이다. 사실, 서양 사람들의 가격 끌어올리는 솜씨는 우리 업체가 배워야 할 필수 업무라고 본다.

브라질

한국시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가격인

상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미국산의 품귀현상이 발생하면 당연히 브라질 정육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kg당 2,400~2,500원 이상까지 예상하고 있다.

이는 대체할 상품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필요한 한데 대체할 상품이 없다면, 가격상승은 예견된 것이고, 어디까지 오를지 지켜 볼만하다.

향후 가격은 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날개의 경우 한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톤당 2,300~2,400블로 접근하려는 모습이다. 130개 수출국가중 한국처럼 매력 있는 국가도 많지 않을 것이다.

덴마크

ROSE Poultry사에서 전략적 결정을 했다. 지난 1~2월 날개(Wings) 시장이 혼란과 덤핑으로 인해서 시장이 문란해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맞춰 현금력 있는 몇몇 업체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대량구매를 추진하기도 했다.

ROSE사는 한국시장의 안정을 위해 4월 선적분 전량을 제3국으로 판매했다. 이를 통해 2월에 계약된 물량을 제외하고는 6월 부산항에 입고될 예정이며, ROSE 고객사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4월이 시작되면 날개가격은 바닥에서 상승곡선을 그리며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날개(Wings)를 주요 상품으로 사용하는 체인본사의 경우도 2/4분기 중에 구매타임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3월을 끝으로 약재는 대부분 소멸되고 4월부터 호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극심한 소비침체가 3월을 끝으로 막을 내릴 것 같다. 2/4분기부터는 새로운 시장가격과 소비흐름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미국산 장각(Whole Legs)이나 브라질 정육(Bone Less Leg Meat)의 절대적인 수요로 인해 새로운 가격이 형성될 것이며, 높은 가격이 형성되더라도

국내산과 비교하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꾸준한 시장을 갖고 갈 것이다.

4월 시장흐름은 한눈에 들어온다. 물건을 구해달라는 전화는 많이 받지만, 없는 물건을 어떻게 구해온단 말인가? 마땅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값비싼 미국가격과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

‘월간 닭고기’ 광고게재 안내

본회에서 매월 발행하는 ‘월간 닭고기’는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국내 계육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닭고기 전문지입니다.

‘월간 닭고기’에 광고를 원하시는 광고주께서는 편집부(031-707-5722~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월간 닭고기 지면별 광고금액〉

[2007년 4월 현재]

광고 게재면	광고료(원)	비고	
표2(표지 2면)	900,000	칼라	※ 부가세 없음. ※ 연간 계약시 광고료 조정 가능 ※ 광고게재시 책 증정
표3(표지 3면)	800,000		
표4(표지 4면)	1,000,000		
표2연결면(대면)	700,000		
표3연결면(대면)	600,000		
내지	500,000		

광고문의 (031)707-5722~4 ‘월간 닭고기’ 편집부